

차이나 뷰티 엑스포 Review

더마 등 프리미엄 제품군의 성장성 주목

유통/화장품

Analyst 양지혜
02. 6098-6667
jihye.yang@meritz.co.kr

2018 차이나 뷰티 엑스포 핵심 포인트

1. 더마코스메틱의 부상: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2018년 차이나 뷰티 엑스포에서 특히 '더마 코스메틱'이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들에게 주목받았음.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더마코스메틱과 코스메슈티컬, 병의원 기반의 에스테틱 등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함.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피부 장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저자극 더마코스메틱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네오팜은 이번 상해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국내 더마코스메틱 시장에서 확보한 탄탄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리얼베리어, 아토팜 브랜드를 집중 홍보하였음

2. 프리미엄 마스크팩: 중국 기초 매스 화장품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 마스크팩 기업들은 중국 로컬 브랜드 대비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진화하고 있음. 특히 엘앤피코스메틱 등 한국 마스크팩 기업들은 저가로 인식되던 마스크팩 시장을 프리미엄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혁신적인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선보임

3. 화장품 ODM의 철저한 현지화 강화: 화장품 ODM 기업들 또한 중국 로컬 고객사들에서 추가적인 공장 증설 등 중국 내 생산 기반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한국콜마는 하반기 무석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더마코스메틱 (기능성화장품)과 새롭게 혁신적인 화장품 제형들을 선보였으며 잇츠한불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후저우 공장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음

중국 소비력 확대 흐름이 견조한 가운데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매수 고려할 시점

지난해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중국인 입국자 수가 회복되고 있고 화장품 수출액과 면세점 매출,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화장품업종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 2분기 실적이 구체화되고 하반기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 반등을 모색할 전망. **결론적으로 중국의 소비력 확대와 중장기 글로벌 성장성이라는 큰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은 만큼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주가 하락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매수 기회로 판단됨**

그림1 2018 차이나 뷰티 엑스포 한국기업 300여개 참가



자료: CM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018 차이나 뷰티 엑스포 한국콜마, 네오팜 리얼베리어



자료: CM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18 차이나 뷰티 엑스포 네오팜, 아토팜 브랜드



자료: 네오팜,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2018 차이나 뷰티 엑스포 네오팜, 아토팜 브랜드



자료: 네오팜,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2018 차이나 뷰티 엑스포 메디힐



자료: CM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2018 차이나 뷰티 엑스포 제이엠솔루션



자료: CM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지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